제7강 팔정도(八正道)

(1교시)J_stJo01_030924_01

◎ 다르마

붓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dharma(法)' 의 두 가지의 의미

1. 'element'로서 존재 또는 경험의 요소를 뜻한다. 예를 들어 코끼리의 코는 인간의 손, 발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록 위치는 다르지만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무척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지혜' 역시 기능적인 유사성을 보인다.

2. '6근(六根) 6경(六境)', 곧 마음 속 감각 기관의 대상. 이것은 일반적이기보다는 협의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불교에서의 '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문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출발하게 된다. 불교의 신(deva) 역시도 일차적으로는 윤회를 겪고 있는 존재이다. 불교의 신(deva)은 인간보다 훨씬 행복하며,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는다.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해소하여 만족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불교의 신(deva) 역시 공덕이 0이 된다면 중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특히 초기 인도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신들이었던, 'Indra'와 'Brahma'는 후(後)에 마치 기독교의 'Angel'과도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윤회를 겪지 않게 된다.

◎ 초기불교와 선불교의 관점 차이

초기 불교가 번뇌를 제거하여 무욕(無慾)의 상태에 이르고자 한다면, 선불교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아무리 명상을 한다한들 자신의 본성을 먼저 보지 못한다면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불교의 입장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우리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우리들은 왜 교회를 가는가. 이미 우리들은 예수의 노력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상태이다. 그렇기에 교회를 가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된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2교시)J_stJo01_030924_02

◎ 팔정도(八正道)

정견(正見)

올바른 견해. 즉,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경전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행위에 도덕적 인과율을 믿는 것.

둘째, 윤회를 믿는 것.

이러한 견해가 올바르게 갖추어져야만 정사(正思), 정언(正言), 정업(正業)을 이룰 수 있다.

정사(正思)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는 것.

정언(正言)

거짓말과 욕, 회유와 협박 등을 하지 않으며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정업(正業)

바른 행위의 결과. karma. 정업(正業)에서의 업(業)이란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는데 세 가지의 업(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신업(身業) physical action : 몸의 행동

② 구업(口業) verbal action : 말의 행동

③ 의업(意業) mental action : 정신의 행동

이 중 의업(意業)이 정신적인 면과의 관련성 때문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정명(正命)

바른 직업관. 출가 수행자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할 바를 뜻함.

* 정사, 정언, 정업, 정명은 **사회 안에서의 윤리적 행동**을 강조 *

정정진(正精進)

동요하는 것을 붙잡는 힘. (energetic mental power)

특히 정(精)은 **'가지런하고 고요하게 하다.'** 라는 의미이다.

정념(正念)

정정(正定)의 준비단계이며 정정(正定)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할 힘(mental power)을 뜻한다. 념(smrti)은 '기억하다.' 라는 의미이며 어떤 대상을 계속 현재화하는 것이다. 념(念)의 한자를 보면 바로 마음의 현재화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교시)J_stJo01_030924_03

정념(正念)

정정(正定)의 준비단계이며 정정(正定)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할 힘(mental power)을 뜻한다. 념(smrti)은 '기억하다.' 라는 의미이며 어떤 대상을 계속 현재화하는 것이다. 념(念)은 마음 챙김, 알아차림 등으로 직역되는데, 이는 바로 마음의 현재화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인지하는 것.)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가장 불교적 수행의 특징을 드러내는 정념(正念)이 중시된다. 정념(正念)이란, 틱낫한과 달라이 라마는 '개종을 하려들지 마라. 대신 항상 정념(正念)하라.' 라는 **정념(正念)의 일상화**를 이미 강조한 바 있다.

틱낫한

정정(正定)

정정(正定)은 마음이 한 곳에 고정돼있음을 의미한다. 항상 적정성의 경지를 유지하는데, 왜냐하면 정념(正念)에 의해 활성화된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정(正定)은 **정삼매**라고도 하는데 이는 samadhi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되었다.

정정(正定)에 이르고 나면 다시금 정견(正見)의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처음에 경험했던 정견(正見)과는 달리 자신이 체득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지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내용은 같을지 모르나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 정정진, 정념, 정정은 **명상**을 강조 *

◎ ‘고(苦)’에 있어 8고, 3종고 등의 많은 체계는 억지로 만든 것이다?
8고 3종고는 주석가들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 주석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새로운 개념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무상한 것은 고(苦).” 무상(無常)을 상(常)으로 보려는 집착의 마음이 고(苦)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학생 프로토콜>

제7강 팔정도(八正道)

03학번 철학과 Y학생

- 법(法)이란 무엇인가.

법(法) 즉, ‘Dharma’는 일반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하지만 ‘dharma'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element'로서 존재 또는 경험의 요소를 뜻한다. 물론 ‘element'가 화학원소자체와는 같을 수 없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dharma'라는 것이 ‘element'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적 유사성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코끼리의 코는 인간의 손, 발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록 위치는 다르지만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무척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지혜’ 역시 기능적인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기능적 유사성은 대다수의 연구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다. 두 번째는 바로 '6근(六根) 6경(六境)' 곧, 마음 속 감각 기관의 대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이기보다는 협의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팔정도(八正道) :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언(正言),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정견(正見)이란, 경전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두 가지로 정견(正見)의 내용은 압축되는데 첫째, 행위에 도덕적 인과율을 믿는 것이다. 착한 일을 했다면 좋은 결과가 도래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했다면 나쁜 결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증명에 있어서 한계를 보인다. 두 번째, 윤회를 믿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윤회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윤회의 개념을 믿지 않는 다고 해서 신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가 올바르게 갖추어져야만 정사(正思), 정언(正言), 정업(正業)을 이룰 수 있다.

팔정도(八正道)에 있어서 행동적인 측면으로는 정사(正思), 정언(正言), 정업(正業)이 있는데, 정사(正思)란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는 것을 뜻한다. 정언(正言)이란 거짓말과 욕, 회유와 협박 등을 하지 않으며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업(正業) 즉, karma 이다. 정업(正業)에서의 업(業)이란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는데 세 가지의 업(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신업(身業) : physical action
② 구업(口業) : verbal action
③ 의업(意業) : mental action
이 중에서도 의업(意業)이 정신적인 면과의 관련성 때문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세 가지 업(業)중에서 의업(意業)이 가장 중요시되는 불교와는 달리, 자이나교는 신업(身業)을 무척 중요시 여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자이나교는 무엇보다도 불살생(不殺生)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갔다. 자이나교도 들은 채식주의를 하면서도 씨앗을 생명의 근원이라 간주하며 절대 먹지 않았다. - 물론 모든

국가의 불교가 채식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불교도들은 자신 자신을 위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고기를 먹는다 - 또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인해 옷을 입지 않은 것은 물론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다녔다. 이러한 이유로 자이나교도 들은 자연스레 농업보다는 상업에 주로 종사하게 되었다.

정명(正命)이란, 바른 직업관을 의미하며, 출가수행자들에게는 그들이 해야할 바를 뜻한다. 정사(正思), 정언(正言), 정업(正業), 정명(正命)이 사회 안에서의 윤리적 행동을 강조한 것이라면,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은 명상(meditation)을 강조한다. 정정진(正精進)이란, 동요하는 무언가를 딱 붙잡아 매는 힘(energetic mental power)을 뜻한다. 특히 정(精)은 **'가지런하고 고요하게 하다.'** 라는 의미이다.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이 세가지 중에서 특히 가장 불교적 수행의 특징을 들어내는 정념(正念)이 중시된다. 정념(正念)이란, 정정(正定)의 준비단계이며 정정(正定)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할 힘(mental power)을 뜻한다. 념(smrti)은 '기억하다.' 라는 의미이며 어떤 대상을 계속 현재화하는 것이다. 념(念)의 한자를 본다면, 현재를 뜻하는 今과 마음을 뜻하는 心의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념(念) 은 마음 챙김, 알아차림 등으로 직역되는데, 이는 바로 마음의 현재화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틱낫한과 달라이라마는 '개종을 하려들지 마라. 대신 항상 정념(正念)하라.' 라는 정념(正念)의 일상화를 이미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젠센터는 불교를 미국에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곳이다. 이 곳에서 1985년 승려와 요기를 초청해 한가지 실험을 벌인 적이 있다. 바로 승려와 보통사람, 그리고 요기의 뇌파의 분석 실험을 한 것이다.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기 보통 사람 승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불교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건 다름 아닌

승려이다. 승려는 현재에만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 없이 승려는 현재를 사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요기는 인도의 보편화된 수행방법을 보이고 있지만 불교적이지는 않다. 또한 보통사람 역시 과거의 업에 따라 살면서 익숙해지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정(正定)은 마음이 한 곳에 고정돼있음을 의미한다. 항상 적정성의 경지를 유지하는데, 왜냐하면 정념(正念)에 의한 활성화된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정(正定)은 정삼매라고도 하는데 이는 samadhi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되었다. 정정(正定)에 이르고 나면 다시금 정견(正見)의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처음에 경험했던 정견(正見)과는 달리 자신이 체득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지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내용은 같을지 모르나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 지난 프로토콜의 질문들에 관해서.

(1) Y 학생 질문 답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문은 기독교적 신관에서 출발하게 된다. 불교의 신(deva) 역시도 일차적으로는 윤회를 겪고 있는 존재이다. 불교의 신(deva)는 인간보다 훨씬 행복하며,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는다.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해소하여 만족의 상태에 이르게된다. 하지만 불교의 신(deva) 역시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가면 잔액이 0원이 되듯이, 공덕이 0이 된다면 중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특히 초기 인도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신들이었던, 'Indra'와 'Brahma'는 후(後)에 마치 기독교의 'Angel'과도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윤회를 겪지 않게 된다.

(2) S 학생 질문 답변
"동시에 팔정도를 모두 병행하며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즉, 각각의 팔정도가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법이라기보다는 동시에 병행해서 닦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이렇듯 팔정도(八正道)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병행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닦아서 중첩시켜야 한다**는 초기불교의 입장을 더 견지할 필요가 있다.

초기 불교가 번뇌를 제거하여 무욕(無慾)의 상태에 이르고자 한다면, 선불교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아무리 명상을 한다한들 자신의 본성을 먼저 보지 못한다면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불교적 입장을 잘 드러낸 한가지 일화가 있다. 한 제자가 자신의 마음을 닦아 부처가 되기 위하여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본 스승이 기왓장을 닦기 시작한다. 이를 보고 궁금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왜 기왓장을 닦고 계신가요?" 그러자 스승이 답변한다. " 기왓장을 닦아 거울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듯 기왓장을 아무리 닦아도 거울이 될 수 없듯이, 그 제자가 아무리 명상을 해도 부처가 될 수 없음을 꼬집고자 했던 것이다.

선불교의 입장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우리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우리들은 왜 교회를 가는가. 이미 우리들은 예수의 노력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상태이다. 그렇기에 교회를 가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된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8고 3종고는 주석가들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무상한 것은 고(苦)다."는 상(常)을 무상(無常)으로 보려는 집착하는 마음이 고(苦)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 질문

교수님께서는 정념(正念)이 가장 불교적인 명상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념(正念)이란 계속되는 마음의 현재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자는 자신의 첫사랑을 평생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을 가끔씩 떠올리는 행위까지도 정념(正念)에서 어긋난 것입니까? 또한 정정(正定)에 이르고 나면 또다시 정견(正見)의 과정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은 죽을 때까지 무수히 반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반복한 이후에는 더 이상 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